

2024. 1. 14.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VT Goodwin Hall

## 설교: 임동진

본문: 마가복음 Mark 7:31-17

제목: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다

## 본문 읽기

(표준새번역) 7: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ESV) 7:31 Then he returned from the region of  
Tyre and went through Sidon to the Sea of  
Galilee, in the region of the Decapolis.

7:32 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7:32 And they brought to him a man who was deaf  
and had a speech impediment, and they  
begged him to lay his hand on him.

7:33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7:33 And taking him aside from the crowd privately, he put his fingers into his ears, and after spitting touched his tongue.

7:34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7:34 And looking up to heaven, he sighed and said to him, "Ephphatha," that is, "Be opened."

7:35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7:35 And his ears were opened, his tongue was released, and he spoke plainly.

7:36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7:36 And Jesus[h] charged them to tell no one. But the more he charged them, the more zealously they proclaimed it.

7:37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기를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하였다.

7:37 And they were astonished beyond measure, saying, "He has done all things well. He even makes the deaf hear and the mute speak."

본문 31 절. 예수님은 왼쪽 위 두로와 시돈을 거쳐, 크게 돌아서 오른쪽 중간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모두가 방인의 땅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데가볼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군대(레기온) 귀신이 나왔던 사건도 데가볼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표준새번역) 7: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ESV) 7:31 Then he returned from the region of Tyre and went through Sidon to the Sea of Galilee, in the region of the Decapolis.

32a 절.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개역한글 성경의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표준새번역) 7:32a 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

(ESV) 7:32a And they brought to him a man who was deaf and had a speech impediment, and ....

(개역한글) 7:32a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

특히 35 절. ‘혀가 풀리고 말을 똑바로 하였다’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말을 더듬었던 것이 아니라, 혀가 굳어서 말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7:35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7:35 And his ears were opened, his tongue was released, and he spoke plainly.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은 큰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번째 문제는,

## 문제 1: 없어도 될 것들이 있다

없으면 좋을 것들, 없어야 할 것들

방금 본 35 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자 이 사람은 바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볼 때, 이 사람은 말을 할 줄 알았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말을 할 줄 아는데, 어느날 귀는 안 들리게 되고, 거기다가 혀가 굳어져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답답함, 억울함, 절망, 엉어리, 분노!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없어도 될 것들이 우리 인생 길을 막습니다. 아니 없으면 더 좋을 것인데 딱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 일이 그때 일어나 내 인생에 흠집을 냅니다. 누구에게는 부모나 가족이 가장 큰 장애물이고, 누구에게는 신체적 약점이, 누구에게는 나쁜 습관이, 누구에게는 어떤 사건이, 누구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누구에게는 너무 강한 욕정이, 누구에게는 치열한 경쟁이, 누구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혹은 사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34 절.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7:34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7:34 And looking up to heaven, he sighed and said to him, "Ephphatha," that is, "Be opened."

어떤 학자들은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과거에 분노와 저주로 가득찬 악한 말을 많이 했거나 그런

말을 많이 들어 상처로 가득찬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와 죽음의 말들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서로를 다치게 하는 가정 환경, 저주와 폭언으로 가득찬 인간 관계를 예수님이 보시고 탄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탄식하실만큼 답답하고, 힘든 삶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상처와 분노, 생각만해도 한숨이 절로 나고, 가슴이 답답해 지는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삶도 우리의 삶도 결코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될 것들이 있어서 더 힘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 예수님은 헤세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헤세드(은혜, 사랑, Steadfast Love)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회복과 치유의 이유와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뻐서,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의지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거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잘보이면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를 때, 이미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고, 부어 주셨고, 넘치도록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벌써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약 1:5 절. 돈이 있어도, 성공했어도, 인맥이 좋아도 해결 못하는 것이 지혜의 부족입니다.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까지도 '아낌 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표준새번역) 야고보서 1:5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 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ESV) James 1:5 If any of you lacks wisdom, let him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reproach, and it will be given him.

그런데 이어지는 6 절.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아, 이게 문젭니다. 물론 기도도 잘

안하지만, 믿음까지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여기에는 오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1:6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ESV) 1:6 But let him ask in faith, with no doubting, for the one who doubts is like a wave of the sea that is driven and tossed by the wind.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할 때 말을 잘 못해서 안 주실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요? 다시 앞 절(5 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표준새번역) 야고보서 1:5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 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ESV) James 1:5 If any of you lacks wisdom, let him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reproach, and it will be given him.

‘아낌 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품, 성품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역개정표현을 빌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며, 또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낌 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없어도 될 것들이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들과 상처를 모두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데가볼리에서 예수님 앞에 선 그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의 두번째 문제입니다.

## 문제 2: '있어야 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 나온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32 절. '사람들'이 그를 데려 왔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말이 어눌해서라고 자기가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은 단 한번도 주체적으로, 자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없으면 더 좋았을 그 것, 그

사람,그 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는 아닙니까!

7:32 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엮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7:32 And they brought to him a man who was deaf and had a speech impediment,  
and they begged him to lay his hand on him.

당연히 있어야 할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탄식하신  
겁니다. 못 듣는 것보다, 말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가 치유된 다음에 36 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 사람과 그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했지만, 하나같이 그 말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그들에게는 기분 좋으면, 너무  
기쁘면 버릴 수 있는 정도였던 겁니다. 너무 좋아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그 행동이 사실은 믿음 없음, 믿음  
약함, 신앙 어림의 증거도 됩니다.

7:36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7:36 And Jesus[h] charged them to tell no one. But the more he charged them,  
the more zealously they proclaimed it.

37 절,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칭찬도 하고  
유명해졌지만, 예수님은 칭찬도 유명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입을 통해,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 알려지는 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7:37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기를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하였다.

7:37 And they were astonished beyond measure, saying, "He has done all things  
well. He even makes the deaf hear and the mute speak."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나 유명해 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 예수님은 구원얻는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환자를 보지도 않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33 절. 그를 데리고 무리로부터

떨어지십니다. 이걸 개인 특별 레슨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과 1:1 로 인격적인 시간을 가지십니다.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고 혀에 손가락을 대는 행동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병을 낫게 하는 의사들이 사용했던 보편적인 방법들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7:33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7:33 And taking him aside from the crowd privately, he put his fingers into his ears, and after spitting touched his tongue.

평소처럼 ‘말씀’으로만 치유하시면, 예수님이 낫게 하셨는지, 그냥 때가 되어서 나왔는지조차 구별할 수 없을만큼 믿음 없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그의 눈높이에 맞는 방법으로 ‘시연’해 보이십니다. 그를 만지고, 그에게 손가락을 대시고, 그에게 침을 묻히시는 등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치유의 행동들을 통해 ‘너를 치유한 것인 나, 예수야!’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장소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행동으로 그를 회복시키므로, 치유를 넘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바램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나는 내가 성공하고 부자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겐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사형통하고, 고생도 안하고,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속상한 일도 없이 매일 매일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이며,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좀 험한 길을 지나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손해보고 억울하고 아픈 과정을 지나면서도 내가 거룩해지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가치롭고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는 2024 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도: 하나님 앞에서

- 인생길을 막고 있는 ‘없어져야 할 것들’을 주께서  
해결하시고, 제거하여 주소서.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소서.
-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는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도  
성장하게 하소서. 올해에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데  
성장하게 하소서.

# 폐회 찬송: 543 장. 어려운 일 당할 때

## 543

## 어려운 일 당할 때

(통일 342)

E. P. Stiles, 1876

Simply trusting every day

믿음과 확신

보통으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 37:5)

TRUSTING JESUS: 7.7.7.7. REF.  
L. D. Sankey, 1876

1. 어 려운 일 당 할 때 나 의 믿 음 적 으 나  
2. 성 령 계 서 내 마 음 나 밝 히 비 침 주 시 니  
3. 밝 을 때 에 노 래 와 어 돌 때 에 기 도 로  
4. 생 명 있 을 동 안 에 예 수 의 지 합 니 다

의 지 하 는 내 주 를 더 욱 의 지 합 니 다  
인 도 하 심 따 주 라 서 더 주 만 의 지 합 니 다  
위 태 할 때 도 음 을 주 주 께 간 구 합 니 다  
천 국 을 라 가 도 록 의 지 할 것 뿐 일 세

후렴  
세 월 지 나 갈 수 록 의 지 할 것 뿐 일 세

무 슌 일 을 당 해 도 예 수 의 지 합 니 다

##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3.1.14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다, 마가복음 7:31-37)

1. 데가볼리의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처럼, 나에게 ‘없으면 더 좋을’, ‘없어도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의 어떤 사건, 열등감, 상처, 실패한 관계 등...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 봅시다)
2. 야고보서 1:5-6 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하셨다면, 그 때 이야기를 조금 해 주세요.
3. 지혜도 부족하고 믿음도 없는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을  
개인 특별 레슨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4. 2024 년의 개인 기도제목과 가족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줍시다.